

# 축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유전자분석실 DNA 동일성 검사 통해 소비자 안심

축산물품질평가원 1층에 위치한 유전자분석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와 더불어 DNA 동일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특히 2009년 6월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력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채취된 보관용 시료와 식육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검사용 시료의 유전자형 일치 여부를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각 단계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조치해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분석실은 이력제도의 핵심적인 기술인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DNA 동일성 검사란 국내에서 생산된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현재 유전자분석실 유전자은행에는 비교 대조군 샘플 150만개의 시료를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분석실 김기범 실장은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쇠고기 이력제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우, 국내산 육우의 둔갑판매를 막는 경찰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품질 높은 육류를 적절한 가격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앞으로 유전자분석실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에도 이력제를 적용하여 국내산 육류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함에 따라 식품 안전단계를 넘어安心的 단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

